

## 중기 우수기술이전 시행

우수기술의 이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2003년도 제2차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월 1차 신청·접수 결과 중소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4월 1일부터 11일까지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이란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이전을 받아 이를 상품화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개발 비용을 중소기업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3차(2월, 4월, 6월)에 걸쳐 약 90여개 중소기업에 총 5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인 지난 2월 1차 신청·접수 마감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30% 증가한 151개 업체가 약 127억원을 신청했다.

신청내용을 보면 대학원천기술이 58개(38.4%)로 가장 많고, 개인보유 특허 등이 34개(22.5%), 연구소 보유기술 31개(20.5%)의 순이며, 해외 우수기술은 3개(2.0%)로 나타났다.

## 특허기술 사업화 1471억 지원

올해 특허사업화 지원계획이 확정됐다.

산업자원부는 14일 김칠두 차관 주재로 특허사업화협의회를 열고 1471억원 규모의 올 특허사업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 1135억원에 비해 29.6% 늘어났으며 지원 건수도 2500여건에 달할 전망이다.

지원내용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670억원이 지원되고 특허기술 보유기업에 대해서도 제품개발 및 실용화자금 700억원이 공급

된다.

아울러 특허 보유자가 직접 사업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기술 이전과 평가지원을 통해 사업화 촉진비용 8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허심사도 '아웃소싱'

특허심사도 아웃소싱시대가 열린다'.

특허청은 오는 2007년까지 특허심사 처리기간과 심사물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중 심사관의 판단을 요하지 않는 '선행기술조사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은 지난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온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전체 심사물량 가운데 32%(6만5000건)를 차지했으며, 오는 2007년에는 70%(18만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특허청은 매년 급증하는 심사업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업무의 아웃소싱제도가 정착되면 심사처리기간이 2002년 22.6개월에서 2007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심사관을 500명 증원할 경우 1인당 심사물량도 2002년 342건에서 2007년에는 200건으로 대폭 감소해 심사관의 심사부담이 준 만큼 심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89년부터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사업을 실시해 현재 연 14만건 정도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中企 환경경영 본격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청정생산과 환경경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공급망관리(SCM)체제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자원부는 유럽연합(EU) 및 일본 시장의 환경규제 강화와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을 요구하는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이 공급기업과 함께 청정생산과 환경경영 도입 프로그램을 제시할 경우 사업비의 75~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10개 이상의 협력기업을 갖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진단지도와 기술보급, 환경경영컨설팅 비용으로 연간 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EU는 지난 2월 전기·전자제품폐기지침 및 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을 발효해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80% 이상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납과 수은 등 중금속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일본의 소니사는 지난해부터 '그린 구매시스템'을 강화해 부품 공급업체에 대해 카드뮴과 납 등 유해물질 사용을 자체 농도기준 이하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중소기업의 청정생산과 환경경영능력 배양을 목표로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 14개 업종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도 부품업체의 환경경영 능력을 제고해 양질의 환경친화적인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대기업을 중간관리자로 두는 것이 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경우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도입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단상유도전동기 등 5개 품목 '고효율' 지정

단상유도전동기, 16mm 형광램프용 안정기 등 5개 품목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새로 지정됐다. 고조도 반사갓의 효율기준도 강화됐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지난 15일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고효율 기자재로 새로 추가된 품목은 ▲단상유도전동기 ▲16mm 형광램프용 안정기 ▲원심식 송풍기 ▲환풍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등 5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고조도 반사갓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재료의 부식 ▲도료의 두께 ▲필름 접착력 등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반사판의 반사율이 현행 90% 이상에서 93% 이상으로 높아졌다. 산자부는 또 시간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퇴행성 방지율을 현행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강화했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75억원 상당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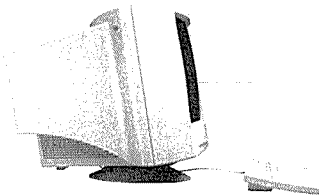
## 산유국, 개도국 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 - 수출보험 담보율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산업자원부는 최근에 고유가로 구매력이 커진 산유국 및 에너지·통신설비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수출을 적극 확대키로 하고, 우선적으로 수출보험·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 3월중 시행할 계획임

### □ 산유국 및 개도국 수출기업에 대한 중장기수출보험 지원 확대

- 플랜트 등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중장기수출보험 담보율을 현행 90~95%에서 100%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고,
- 수출보험공사로 하여금 발주국의 채무이행능력 등 국별 신용도가 열악하더라도 탄력적인 수출보험인수 심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인수토록 할 예정
  -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 등 정부지급보증이 없는 무보증거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
- 중소형 플랜트 수출유망품목 발굴 지원
  - 금년중으로 보안시스템, 원예자동화설비 등 중소형 수출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보험 공사로 하여금 총 2천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